

새 책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만든다

이 책 제주 김규중 시인 신작 시집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려 했던 날들

▶ **없던 오늘**(유병욱 지음)=코로나 19 이후 맞이하게 된 시대의 변화를 카피라이터의 시선으로 들여다본 책이다.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지금, 카피라이터로서 나뉠의 시각을 담아 오늘, 우리, 시대, 변화, 멋진 것, 아름다운 것, 사라졌으면 하는 것,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북하우스, 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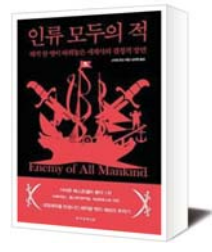
▶ **화학 연대기**(장홍제 지음)=흔히 화학 하면 딱딱한 주기율표 속 원소기호나 원자 위험해 보이는 시약으로 가득한 실험실 풍경을 떠올리며 나오는 무관한 분야라고 단정 짓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저자는 화학이라는 학문의 탄생과 발전, 가파른 변화와 모색 과정을 실험과 사실에 기반해 역사적으로 추적해낸다. EBS 북스, 2만2000원.



▶ **햇살을 향해 헤엄치기**(엘리 라킨 지음, 이나경 옮김)=주인공 케이트 린 엘리스는 어릴 때 마음 속 상처로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 나넷과의 세대를 가로지르는 이해와 공감을 통해 오랫동안 회피해온 트라우마의 치유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간다. 책은 우리가 왜 치유의 이야기를 자주 찾게 되는지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다. 문학사상, 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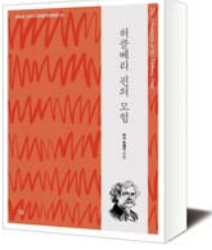
▶ **인류 모두의 적**(스티븐 존슨 지음, 강주현 옮김)=세계 최초로 1억 원이 넘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였던 '해적왕' 헨리 에브리의 추적기다. 저자는 그의 조국 영국, 당시 인도 지역을 통치했던 무굴제국과 그곳에서 무역을 하던 동인도 회사에 얽힌 이야기를 펼쳐낸다. 한국경제신문, 1만6800원.



▶ **고구려7**(김진명 지음)=소수림 왕 구부가 동생 이련(고국양왕)에게 태양의 권력을 넘겨주면서 벌어지는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펼쳐진다. 기존 출시된 '고구려' 여섯 권(1-6권)의 개관판에 소수림왕 후기를 다룬 7권이 더해져 고구려 최전성기를 관통하는 왕들의 일대기를 만나볼 수 있는 '고구려' 1부 '땅을 다지다'가 완성됐다. 이타북스, 1만5800원.



▶ **허클베리 핀의 모험**(마크 트웨인 지음, 진형준 옮김)=자유로운 영혼 허클베리 핀과 순수한 영혼의 흑인 노예 짐은 자유를 찾아 함께 모험을 떠난다. 허클베리의 양심을 통해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살림, 1만3000원.



존 돈반 등 공저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초기엔 '냉장고 엄마' 비난 신경다양성 운동 인식 변화

첫 장의 소제목은 '도널드'다. 1933년 9월 9일 미국 미시시피주 포리스트에서 태어난 도널드 트리플렛은 최초로 자폐증 진단을 받은 소년이었다. 2013년 도널드가 80세가 되기까지 자폐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ABC 방송에서 자폐인과 가족의 삶을 다룬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존 돈반, 캐린 저커가 공저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에 그 이야기가 담겼다. 850쪽이 넘는 우리말 번역본은 1930-1960년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다르며 조금씩 나아갔던 날들을 짚고 있다. 자폐증에 관한 최초의 보도는 1948년 4월 26일 '타임'지의 '의학-얼어붙은 아이들'이란 기사였다. 이 기사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확진된 모든 증례의 엄마 아빠가 자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항상 냉담하고 예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글을 맺었다. 여기에서 나온 '냉장고 엄마'라는 말은 20년간 자폐증에 관한 대중적 논의를 규정하는 단어였다. 1980년대 말엔 '레인 맨' 개봉으로 자폐증이 대중문화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영화는 자폐와 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의해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는 음모론이 퍼졌다. 과학과 비교학의 충돌 속에 1993년 자폐인인 짐 싱클레어는 "우리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라는 연설로 자기권리호호운동을 탄생시켰다. 1996년엔 자폐인인 호주의 사회학자 주디 싱어가 신경다양성이라는 용어를 창안한다. 이는 인간은 정신적 다양성을 지닌 존재이며, 자폐란 특정한 측면이 덜 발달한 대신 다른 측면이 발달하는 현상으로 보게 된다. 저자들은 자폐증이란 수수께끼는



여전히 복잡하지만 그것들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었다고 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엄마 비난, 상호 비방,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방지를 목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울은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치료와 사회적 서비스, 이해를 위한 과정에 뛰어들어 이들의 선량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 수십 년을 겪으며 자폐인은 인류라는 옷감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주름일 뿐이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름지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강병철 옮김, 꿈꾸자 서울의학사, 4만 원. 전선희기자

전장에서 청춘을 보낸 참전용사들의 기억

라미 현의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오늘(6월 25일)은 6·25전쟁 71주년이 되는 날. 사진가 라미 현이 글을 쓰고 사진을 실은 '6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는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남미 등 세계 각국 참전용사들이 기억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이라는 낯선 전장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의 인간적인 사연이 스민 또 다른 전쟁사다. 라미 현 작가가 '선생님'으로 칭하는 참전용사를 기록하게 된 계기는 '프로젝트-솔저(Soldier) 첫 번째 기획으로 마련한 2016년 '대한민국 육군 군복' 사진전이었다. 그는 이 전시에서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한국전쟁 미 해병대 참전용사"라고 밝힌 이와 우연히 마주쳤다. 작가는 그 눈빛을 사진으로 더 담고 싶었고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을 만났다. 표제는 저자가 참전용사들을 활

영한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선물하면서 꺼내는 말에서 따왔다. 액자를 받고 사례를 하고 싶다는 참전용사들에게 저자는 매년 "선생님께서는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라고 했던 것이다. 메릴랜드에 사는 윌리엄 빌 베버씨에게도 그랬다. 베버씨는 전쟁으로 오른 팔을 잃었고 후속 중에 포탄을 맞아서 같은 날 오른쪽 다리마저 잃었다. 하지만 베버씨는 한쪽 팔과 다리가 없는 것보다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는 말을 건넸다. 2019년 6월, 작가는 베버씨에게 사진 액자를 전하며 여느 때처럼 "선생님께서 69년 전에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너희가 빚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유



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의무가 있어. 바로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잃게 생긴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전하고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도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함이지." 작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도 22개의 한국전쟁 참전-지원국을 모두 방문해 마지막 참전용사가 살아 계신 한 힘닿는 대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마음의숲, 1만6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소규모 통합학교인 무릉초·중학교 공모교장을 지낸 김규중 시인. 지난해 정년퇴임한 그가 그 학교에서 보낸 4년 동안 "마음에 새겨진 수많은 결을 갈무리하는 조그만 기록"이라며 한 권의 시집을 엮었다. '2학년과 2학년 사이에'로 초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한 울타리에 있는 초·중 통합 학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시에서 따온 표제다. 시인은 정년을 앞둔 시기에 통합 학교에서 근무한 나날을 짚으며 지난 교직 생활에 대한 아쉬움, 남은 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시편에 실었다. 거기엔 현실과 이상이 서로 어그러지는 순간들도 있다.



성찰·열정 등 머릿속 맴돈 초·중통합 혁신학교장 4년 교육 현장서 길어올린 시편 앞둔 시기에 통합 학교에서 근무한 나날을 짚으며 지난 교직 생활에 대한 아쉬움, 남은 이들에 대한 기대감을 시편에 실었다. 거기엔 현실과 이상이 서로 어그러지는 순간들도 있다. 새벽녘 버스를 타서 학교가 있는 무릉리에 도착하기까지 교장 시절 시인이 지나쳤던 정류소는 모두 아흔 세 곳. 그 긴 거리를 이동하며 그는 "오늘 하루/ 유치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122명 친구들과/ 눈 맞추고서/ 퇴근하자고 마음을 다잡"("출근 버스에서 내리며")는다. 아이들의 시선으로 써 내려간 '마늘농사' 등 '아침맛이' 연작 10여 편에서 그런 노력이 느껴지고,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건네는 캔커피를 책상 한쪽에 놓고 오랫동안 보고 있는 장면('보지만 한 캔커피' 1-2)에선 모든 만남이 소중하게 다가왔던 날들이 펼쳐진다.

'노심초사', '성찰', '열정', '조심 교사', '공문', '초과근무' 등에는 두터운 벽을 허물고 싶은 어른들의 세계가 있다. 시인은 그 교육 현장을 관통하면서 갖가지 공문을 목살했을 때 닥칠 따가운 시선을 이겨낼 내공이 약해 결국 수용하고 마는 ('공문') 상황을 털어놓으면서도 태풍이 몰아치던 날 이른 시간에 출근해 교실을 살피고 아이들 안부를 챙기는 어느 교사('조심 교사')의 열정이 꺾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자발성, 소통, 리더십, 헌신, 성장 등 그가 학교 혁신운동에 참여하면서 오래 자리했던 단어들에 대한 생각을 짙막하게 표현한 시집 말미의 단상들은 우리 교육의 한계와 과제를 떠올리게 만든다.

시인은 '한 나무' 두 편에서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 없다고 노래했다. 아이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뚜벅뚜벅 걷다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시인은 "물 흐르듯이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일을 마치며")란 시구절로 교직을 떠나는 심경을 담담히 털어냈다. 작은숲, 9000원. 전선희기자



“언제든지 가시면 됩니다”

후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관광협회

1박2일 자유여행+렌트카/ 특급 비즈니스 호텔 2인1실

₩149,000~ (4인 기준)

₩159,000~ (3인 기준)

₩169,000~ (2인 기준)

※ 단체는 별도문의

무등산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포함, 호텔(2인1실), 호텔조식1회, 관광지 입장료, 렌트카(소나타급),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식&석식, 룸싱글차지, 기타개인비

(주)퍼시픽투어 T. 747-8099 (주)굿모닝제주투어 T. 723-3350 아 주 관 광 T. 757-7771